

P104

국내 절멸위기 동물 개체군 복원을 위한 새로운 시작

한상훈

국립공원관리공단 반달가슴곰관리팀, 서울 121-020

1. 반달가슴곰 관리팀의 태동 21세기의 화두는 생명과 환경이라고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소중한 생존기반인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명이웃인 야생생물들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희생시켜가며 현대적 국가건설과 경제적 선진국가를 지향하여 지난 반세기를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2002년 5월 3일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에 '방사 반달가슴곰관리전담팀(이하 곰관리팀)'이 조직된 것이다. 한민족의 탄생설화인 단군신화의 주역인 반달가슴곰, 민족의 상징적 야생동물이지만 보신을 위한 밀렵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단절과 환경훼손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의 종 복원을 위해 서식지내의 현장 관리팀의 결성은 비단 국립공원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된 생물다양성 보전의지의 행동적 실천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멸종위기야생동물 반달가슴곰 종 복원을 위한 현장 전문관리팀의 탄생까지는 1996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6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야생동물연합 등의 민관기관과 신문·방송사 등 언론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소요되었다. 그 위에 국외, 특히 일본의 곰 전문가들의 헌신적 협력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2. 멸종위기 생물 종 복원의 어려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복원의 궁극적 목표는 현지(서식지)내 복원이며, 장기적으로 복원개체들이 현지 환경에 적응하여 스스로의 증식과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안정적인 개체군의 존속이라는 중대한 과제이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복원의 역사는 겨우 40여 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많은 국가에서 수 백 종의 멸종위기 생물들의 복원을 시도해 오고 있지만 성공한 사업은 불과 수 %에 지나지 않는다. 그 위에 한 생물 종의 복원에는 대상 생물 종의 세대변화에 필요한 수 십 년이라는 시간과 수 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인 복원 성공 사례로서는 미주지역의 흰두루미, 캐나다 기러기, 버팔로 복원과 독일지역의 늑대 복원 등이 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국내 멸종위기 생물 종으로서 최초로 시도되는 반달가슴곰 종 복원사업은 10년의 기간과 15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최소 50마리의 곰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리산지역에서의 반달가슴곰의 유전적·생태적으로 안정적인 개체군의 크기는 100~200마리이다.
3. 곰관리팀의 전문인력 멸종위기에 처한 한 생물종의 복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진 연구관리 조직의 구성이다. 자연과학, 특히 현장 생물학이라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대학의 투자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열악한 국내학술환경아래 곰관리팀은 현 상황에서 국내에서 야생생물과 환경 전문인력이 곰 복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경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영남대학교, 일본 북해도대학 등 국내·외 대학과 대학원에서 관련 학식을 쌓고,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겸비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야생동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갈 젊은 인재들의 광장이다. 곰관리팀 팀원들의 개인적 연구능력은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서식지 환경분석(박 소영), 설악산국립공원의 산양특별보호구역 설정(최 태영), 섬진강과 남해일대에 서식하는 수달의 식이습성(차 수민), 한국산 고라니의 형태해부학적 연구(정 상욱),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개설(하 정욱), 한국산 송곳별 상과의 계통분류학적 연구(정 동기), 조계산 식물상의 구계학적 연구분석(박 선홍) 등 학위논문으로도 충분히 집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곰관리팀은 야생생물과 서식지의 생태적 보전을 위한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연구인력의 현장연구소 기능을 갖춘 집단이다.
4. 성과와 목표 2002년 5월 발족이래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 곰을 생포하여 발신기 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4시간 무선추적을 통해 곰의 일일 활동 유형을 파악하고, 계절별 이동과 활동 현황자료 수집, 자료의 GIS 전산화와 DB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리산의 야생 반달가슴곰의 실태도 일부지역이나마 중점 조사하여 2002년 11월에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실체를 촬영하여 언론을 통해 온 국민들에게 국립공원과 곰복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곰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히로시마에서 "아시아의 곰"이라는 한중일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전문가들과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3년은 곰관리팀 발족의 사실상의 원년으로 생각한다. 최초로 시도된 지리산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장이라도 시급히 필요한 추가 곰 개체의 방사, 지리산 국립공원에 생존하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곰관리팀의 금년 목표이기도 하다. 지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의 미래는 곰관리팀의 지속적인 현장 연구활동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제까지 탐방객과 시설 관리위주의 국립공원관리정책에서 더 나아가 중요한 자연자원 관리로의 과감한 정책 변환과, 생물종 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 투자가 시급히 요구된다.